

인증제품명	스마트 AED 통합관리 시스템	
모델명	SA-ORIW 등 모델23종	
<p>제품설명 및 제품사진</p>	<p>※ Smart AED (스마트AED)란? 자동심장충격기(AED)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AED의 정상작동을 확보하기 위해 AED의 상태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합 모니터링 장치 및 플랫폼 서비스이다.</p> <p>※ Smart AED 용도 및 필요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4분)을 지키기 위한 AED 관리, 운영체계 강화 2) AED와 보관함 구비 및 매월 1회 점검의무준재 3) AED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한 AED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4) Smart AED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AED의 정상작동 보장 및 생명구조 성공률 제고 5) 7가지 핵심 요구기능에 대한 관리 필요 	
적용 ICT기술	IoT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기준(TCC-0163/R00-2022)	
기업명	루씨엠(주)	
기업소개	<p>루씨엠(주)는 ‘생명을 지키는 혁신기업’ 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의료 융복합 신기술의 보급과 지속적인 혁신 의료기기 사업 과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용해왔습니다.</p> <p>‘Smart AED 통합 모니터링 장치 및 플랫폼 서비스’ 가 그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초로 자동심장충격기(AED)와 사물 인터넷(IoT)을 융복합 시킨 이 기술은 2019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2019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국내 1 호 기업, 2020년 산업부 지정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2020년 조달청 제1회 혁신 조달 경진대회 본선 진출, 혁신 제품 분야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장관상 등을 받으며 제품의 혁신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사회, 미룰 수 없는 사회 안전망 과제 1인 가구 및 인구의 고령화 사회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급성심장정지 발생 환자수는 30,539 명, 인구 10만명 당 급성심장정지는 59.5명에 육박하며, 그 중 90% 이상, 하루에도 70명~8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급성 심정지 발생 시 구조 가능한 ‘골든타임’ 은 단 4분. 이 4분 안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자동심장충격기(AED)입니다. 생명구조율을 높이고자 공공기관 등에 AED 비치의 의무화 하였지만 관리인력 부족, 수기 관리의 한계로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10배 이상, 80%까지 상승합니다. 루씨엠(주)는 201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p>	

	기술연구개발 과제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AED의 정상작 동을 확보하는 원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 ‘Smart AED’ 를 개발하여 기술의 융복합 혁신성을 검증받으며 제품화 에 성공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E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는 Smart AED 보급을 확대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www.SmartAED.org
연락처 및 이메일	(연락처) 031-337-5386~7
	(이메일) Info@lucm.co.kr / ericknam@lucm.co.kr

